

용도에 따라 닥치는대로 주인공에다 굴러놓아라

29면에서 계속

난과 액난을 적극적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거기서 정말 또 한 소식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향은 좋고 감사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는 그 회향이 더욱 큰 정진의 거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스님: 회향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죠. 지금 현재 살아나는 생활 속에서 인생의 회향을 어떻게 해야만 잘했다고 하느냐는 회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집안을 난가(亂家)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회향을 마치느냐, 또는 부인을 돌 셋씩 두어서 서로 은월이 지게끔 해 놓고 회향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수수하게 잘 살다가 회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는 그러한 일념으로써 살아 가면서 회향을 하느냐, 이런 거죠.

또 이러한 공부를 하는 스님네들의 일체 회향이 있습니다. 일체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회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서 회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살아서 회향이 있는 까닭에 살아 나온다 죽는다 이런 언어가 막히는 겁니다. 죽은 뒤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열반이 되고 회향이 되어 진짜 그것은 삼세(三世)를, 즉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찰나찰나 나투면서, 우주와 이대천세계를 찰나찰나 나투면서 보고 듣고 행하고 맘대로 자유권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유권을 얻음으로써 지금 부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말을 했다 하면, 그 넓은 끝없는 바다 가운데서 도장을 받았다, 이 소라나 똑같은 애깁니다. 해인(海印)을 받았다, 해인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 까닭에, 죽어서는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대의의 공부를, 죽고 사는 생사를 다 끊을 만큼 공부를 못 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고(苦)도 낙(樂)도 없어서 공부가 아니 되죠. 낙도 고도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자기를 다스리고 공부가 되는 거지, 몸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 생사를 초월하고, 또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다, 가신다, 이런 언어가 끊어지고 살아생전에 회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지에 회향을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일체지를 회향을 한다 이리한다면, 그 회향이라는 이름도 방편입니다.

그 회향이라는 이름도 방편이지 회향이라는 그 자체는 찰나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집에까지 데려다 놓는다.' 요게 회향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바깥에다 놔두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안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회향입니다. 밥을 했으면 먹고 치운 게 회향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무엇을 맡아서 해 준다 그대 놓고 끝을 마치지 못하는 건 회향이 못 되죠. 그래서 그렇게 끝을 마치는 사람은 애당초에 그런 일을 맡지를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맡지를 않죠. 내 능력과 내 분수를 알고 내 능력이 되는 일을 해서 끝을 마치죠. 그게 회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들뜬 마음에서 그냥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뿌려 놓고 자기가 회향을 못하고 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찰나찰나 회향이

생각해 봐서 만약에 그 집에서 안값아도 내가 값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또는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집이나 보증을 서는 거지, 아무한테나 보증 서는 게 아니죠. 자기 집 한 채 놓고 땅 몇 뼤이 있다고 보증을 탁 서 놓고 선 그거 훌쩍 뺏기고 거지가 돼 가지고, 식구들까지도 다 거지를 만들고 이라는 건 회향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착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따로 있어요. 똑똑하고 착한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회미하게 살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니죠. 정확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하하하... 그리고 인자하고요, 둥글고...

질문자(남): 오늘 이 질문이 조금이라도 공덕이 된다면, 이 공덕이 우리 선원의 연세 많으시고 몸 불편하신 모든 보살님들에게 회향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아유, 그렇게 말씀 마시오.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거요, 우주 천하가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부처님만 자꾸 섬기길래, 부처님을 갖다가 그냥 바깥에 내다 놓고 부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이 부처를 믿고 온다면 다 안 와도 좋다.' 이랬습니다. 다 안 와도 이 법당 안에 꼭 차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형상을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같이 돌 아니게 생각하라. 내 몸과 돌이 아니요, 내 생명과 돌이 아니요, 내 마음과 돌이 아니니까 그 돌이 아닌 걸로만 알고 나가라.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한테 다 일임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일념으로써 삼정례(三頂禮)를 하든지, 급하면 일정례를 하든지, 팔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그러고, 그 정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가 다 가지고 안고 가는 게 주인공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또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는 자기가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변소에 앉아 있으면 변소에 계시고, 들에서 있으면 들에서 계시고, 바깥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부처가 계시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부처가 계시고, 또 방안에서 자면 자는 부처가 계시고...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큰 일이죠. 하하하.

질문자(남):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지난번 소년소녀 가장돕기 범회를 성황리에 마치게끔 해 주셔서 큰스님, 다시 한 번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것이 이 한마음 공부를 접하게 된 인연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

고,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에 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에게 관찰 때마다 제 마음이 다 전달되기를 바라지마는, 그 마음이 아마 전달이 못 된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스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공부를 접하게 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일반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 볼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했죠? 맥의 마음이 당차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허접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그 마무리를 못하는 것을 주인공에다 맡기고 하려면 맥의 말따나 통신이 돼야 하는데 통신은 되지 않고 힘들겠죠. 내 팔자 한탄까지 나오고요. 그렇지만은 진실히 믿고... 지금 맥과 같은 상황 속에선 움작 달삭도 못하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땐. 하지만 진짜로 믿어서 통신이 된다면 귀인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불이 났어도 그 불뿔이 속에서 빠져나가는 놈은, 벽이 없고 못없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지, 문만 찾아서 빠져나가고 하니까 못 빠져나가지요. 아직은 맥에서 신심이 돼서 그걸 잘 납득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맥의 나무는 맥의 뿌리만 믿고 '너 뿌리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어. 뿌리만이 가지와 잎새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어.' 하고서 모든 걸 거기다가 하세요.

사회자: 질문 이제 끝났습니다.
큰스님: 그러세요? 그럼 뭐 다행이로군요. 하여튼 찰나찰나 회향이 있지, 미래에 회향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올려 놓고 예뻐 보이고, 마치 내려가면 회향입니다. 그거와 같이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찰나 찰나, 내가 얼마나 뿌리고 얼마나 거렸는가 그것이 정확해야만이 회향이 찰나찰나 잘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역시, 아주 준엄하게 가르치신 뜻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합장사미) 더운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하하하. 이렇게 동참하시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요, '야, 우리의 인연도 보통의 인연이 아니로구나. 지금 세(世)에만 만난 게 아니라 수억 겁 세에도 우리는 같이 만나서 공부를 했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친구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도 뵈었고, 남자 친구도 뵈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도 뵈었고, 그냥 자기가 자식도 뵈었고, 자기가 부모도 뵈었고 그냥 겁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합장단을 향하여) 음성 공양을, 공양을 또 잘 들어야죠. 공양이란 말 무슨 소리 줄 아시죠? 합창하는 게 공양이예요. 공양!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고, 전생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전생에 가졌던 그 업을 우리가 이승에서 다시 만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 두 가지가 다입니까? 그러면 들어오신 자가 얼마 안되는군요.
질문자(남):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큰스님: 신심이군요. 하하하...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사는

* 위 본문은 1996년 6월 2일 범행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용도가 오든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려서
자기네가 지혜를 낳아서
작용하는 거지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줍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네 스승을 네 스스로 찾아라
이겁니다.

지 회향이 따로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진실하게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둔다. 나는 절대로 앙심을 속이지 않는다, 속인다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스무드하게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또 내 이품같이 생각하고, 그러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렇게 착하기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양면을 다 봤습니다. 법도, 그래서 불(佛), 법(法), 승(僧)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맡아야 회향을, 끝을 잘 맺는다.' 고 했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보증을 서 주거나, 빚 보증을 서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내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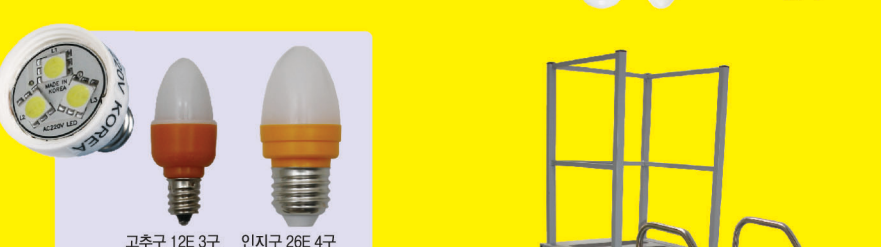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적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8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형(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영사용) 탈들이 방식
노형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방생, 탈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